

경제현실 해결책, 서방교류 확대

변화와 적응의 소용돌이, 국제무대

I. 양극체제의 와해

지난 8월에 있는 소련 쿠데타의 실패는 미소의 관계 및 국제 정세 전반의 재구조화를 추동하고 있다. 우선 소련 국내적으로는 '정통사회주의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보수파의 몰락이 가속화되는 한편, 러시아공화국을 비롯한 소련내 공화국들의 주권이 확대되면서 '집'의 분산이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양상이다. 현재 소련의 정세 추이를 요약하자면 공산당의 붕괴와 사실상의 연방체제의 추세에 따라 민족문제가 증폭되고 있고, 개혁의 가속화(사실상 자본주의화)의 급진전)로 말미암아 소련 경제의 세계자본주의의 시장으로의 편입 또한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국제구조내에서 소련이 '2등국화', '주변부화'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소련 쿠데타의 발발 배경은 소련의 국제정치 지형상에 있어서 입지상의 급격한 축소, '집'의 약화를 초래할 수 있는 '신연방조약' 등 국내외 정치변동에 대한 보수파의 불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소련내 '정통사회주의 세력'들의 소련사회주의 사회에 대한 위기의식에서 출발한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소련의 탈사회주의화 추세에 결정적인 모티브를 제공해 주고 말았다. 쿠데타가 실패로 돌아감과 동시에 '공산당 깃발'이 내려지고 이를 대신하여 공산당 타도를 외치는 '공화국 깃발'이 울려다졌다.

쿠데타가 실패로 끝나는 것과 동시에 미국을 비롯한 서방진영은 자본주의의 옹호자, 열전을 '역쿠데타의 주역'으로 만들기에 급급했다.

독일과 프랑스가 쿠데타의 원인을 서방의 고르바초프를 중심으로 하는 개혁 중도파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 결여에서 찾았다면, 미국과 영국은 계속해서 선(先)시장 경제로의 이행, 후(後)전적인 경제적 지원이라는 원칙론에 대한 강조를 고집하고 있다. 즉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련사태'에 대한 대응에 있어 서방진영내에 약간의 편차가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이들은 최소한 '제2의 쿠데타'를 예방할 수 있는 수준에서의 경제적 지원에 대해서만 합의하는 움직임이다. 특히 미국의 경우는 소련의 자본주의화의 안전

관=엘친, 연방문제의 조정자=고르바초프라는 두 개의 카드를 적절하게 이용하면서 소련을 자신의 하위 파트너로 확실하게 고착시키려고 할 것이다. 이는 미국 단극체제(unipolar system)의 다른 이름인 '신세계질서'로 성를 다짐을 의미한다. 물론 미국 경제의 취약성이 다극화체제로의 전환을 끊임없이 강제하고 있다.

II. 미 패권체제로 전환

한때 90년대 미 경제에 대한 낙관론이 있었지만 이는 아직까지도 관념에 불과하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다.

예컨대 낙관론의 근거는 200년 미국은 대외부채가 1조달러에 달하겠지만, 경제규모가 12조에 달해 사실상 이자지불 부담은 GNP의 1% 이하로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었다. 이와 동시에 재정적자 역시 GNP의 1% 이하로 저하될 것이라고 관측하였다. 여기에 동구권을 포함한 전세계적 차원에서 시장중심 정책이 강화됨으로써 미 경제의 성장과 수출의 신장이 고양될 것이라는 판단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낙관론은 89년 10월 갑작스러운 뉴욕증시의 폭락으로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경기자세가 일기에 반전, 현재까지 미 경제의 침체국면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미 경제의 침체는 보다 구조적인 성격을 띠는 것이다. 우선 미 경제구조를 살펴보면, 81년에 전 산업의 31.2%의 비중을 차지하던 제2차산업이 오늘날은 26.4%로 저하되었고, 이 부문의 노동자 역시 81년 27%에서 24%로 감소하였다.

또한 생산활동 역시 하락세를 계속 보이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자동차와 주택 부문이다. 자동차의 경우 판매와 수익의 저하가 해가 갈수록 심화되어 빅3-GM, Ford, Chrysler의 경우 88년 3/4분기 경우 전년 대비 44%가 감소하였다. 반대로 미국에 진출한 일본계 기업은 44%로 증산되었다. 주택 건설의 경우 역시 88년의 경우 주택 아파트 착공건수가 82년10월 이래 최저 수준에 도달하였다.

이와 같은 경기침체의 전반적 상황은 기업부채와 실업률로 이어지는데 이는 다른 어떤 체제 불균형상의 고조를 의미한다.

기획시리즈(3) — 국제질서 변화와 제3세계

수출 부문에서도 컴퓨터, 정보 처리기기, 공장시설, 설비, 항공기 등의 미 자본재의 경쟁력 역시 상대적으로 감퇴현상을 보이고 있다.

현재 미 경제는 걸프전쟁에서의 군수특수에도 불구하고 해외 민간자본의 유입이 급지된다든지 순유출될 경우 무역수지의 악화, 재정적자의 대폭적 확대, 인플레이션 등으로 금융시장이 대혼란에 빠질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여기에 미국 경제를 위협하면서 소련, 미국경제, 지방에 빠뜨릴 수 없는 부분이 일본 경제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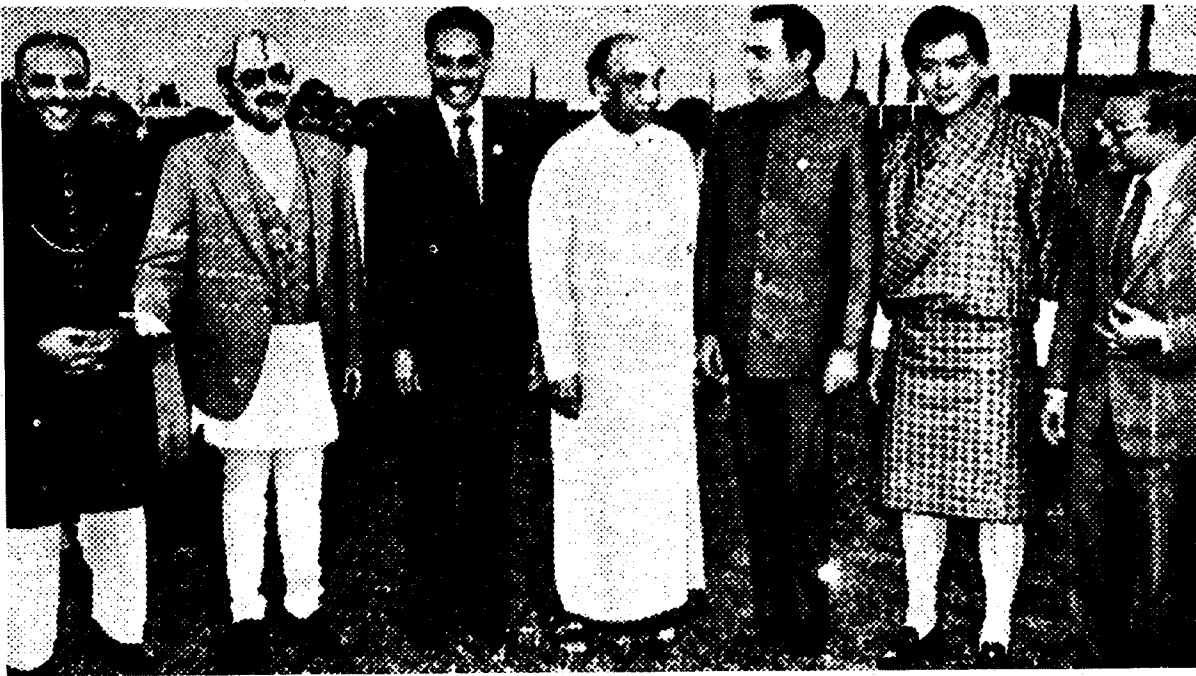
로써 유엔평화유지군 및 다국적군, 유엔군에 자위대 파견, '방위계획' 대강에 대한 수정 등을 제시하고 있다.

물론 이 보고서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일지는 현재로서는 예단하기 힘들지만, 향후 국제구도에서 경제력을 밑받침으로 한 미국의 정치군사적 위상이 현격하게 제고될 것임은 틀림없다. 이미 폐만전쟁 직후에 일본에서는 전쟁에 대한 재정적 참여만 행사하고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 것으로 인해 미국에 대해 커다란 불만을 품고 있던 터였다.

실패에 따른 소련의 제3세계정책 변화나 제3세계를 둘러싼 미소 역학의 변화는 소련의 '신사고'의 고노선 이후 진행되어 왔던 제3세계의 '분화'와 '변화'를 보다 가속화시키는 외부적 조건의 하나라고 할 수 있을 뿐이다.

IV. 노선고수 의지와 선택의 갈림길

일찍이 '페레스트로이카'와 '신사고'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것은 제3세계 사회주의의 지향국들(socialist orientation



현재 제3세계에 있어 빈곤타파를 위한 서방진영과의 경제협력은 불가피하다

서방중심 국제관계 편입 불구 정치적 지향 고수할 듯 빈곤·분쟁 비민주화 등 국내문제 해결이 우선 과제

III. 강대국 위주의 세계와 제3세계의 난제

일본은 경제력을 바탕으로 미국 주도 '신세계질서' 수립 전략에 대한 조심스러운 도전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9월 중순경 제출된 자민당 보고서에서 드러나고 있다. 이 보고서는 "동서냉전 종결 이후의 세계는 미국·유럽공동체(EC)·일본의 3국구조 또는 선진7개국(G7)이 주도하게 된다"고 단정하고 일본은 국제안보보장면에서 경제력에 상응하는 발언권을 포함한 정치적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 보고서는 일본의 정치적 영향력 강화를 위한 전제조건으

로써 소련의 급속한 탈사회주의화 추세를 제3세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소련 쿠데타가 열전의 현격한 지위 부상으로 끝난 직후부터 미소간의 제3세계에 대한 '합의' 사항이 가시화되고 있다. 예컨대 소련의 쿠바에서의 병력철수 선언, 아프가니스탄 분쟁지역에 대한 양국의 무기공급 중단 합의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제3세계에 어떤 새로운 '전환'을 가져올지 할 계기가 될지는 미지수이다.

이미 제3세계는 소련에서의 '페레스트로이카'와 '신사고'의 출범과 동시에 급격한 '분화'와 '변화'를 일차적으로 겪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련 쿠데타의

countries)이다. 소련을 비롯한 동구권의 '혁명적'인 지각변동 과정에서 제3세계 사회주의의 지향국들의 변화 양상은 ①동구사회주의권의 변화된 체제를 전면 수용하였거나 ②수용과정에 있거나 ③제한적으로 수용하였거나 ④전통적 모델을 고수하는 국가군들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변화 양상에는 이제까지의 제3세계 지향국 대부분이 부패한 특권층에 기초한 국가자본주의, 권위주의체제만을 양산하였으며, 이들에 대한 정치경제적 지원은 더이상 불필요하다는 '신사고' 입안자들은 제3세계 지향국들의 실재를 '최빈국화'와 '비민주주의'로 진단하고, 이에

베트남, 쿠바는 소련 사회주의의 해체, 양극구조의 붕괴라는 현재의 국제정세속에서 어떠한 대응을 해나갈 것인가.

먼저 중국의 경우 소련 및 동구, 제3세계 사회주의의 해체 추세속에서 내부적으로는 당 주도의 사회주의노선에 대한 고수를 재확인하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자신을 포함한 쿠바, 북한, 베트남을 포함한 '신사회주의연맹'의 결성을 추진하고 있다. 북한 역시 '주체형 사회주의'라는 슬로건하에서 중국과 같이 사회주의노선의 고수를 강조하고 있다. 쿠바의 경우 쿠바로 부터의 소련군 철수 결정은 미국의 공격을 유도하는 것이라며 미군도 쿠바 해군기지에서 동시에 철수할 것을 요구하고

부분이다.

제3세계 국가차원의 연대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 비동맹운동은 1961년 유고슬라비아의 수도 베오그라드에서 제1차 정상회의를 개최한 이래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그 영향력을 확대, 103개국의 성원을 가지게 되었다. 이는 유엔 참가국의 2/3에 달하는 숫자이다.

그간 비동맹운동은 "비동맹은 모든 형태, 모든 현상의 제국주의 및 기타 모든 형태의 외국 지배에 반대하는 투쟁의 동력이다"라고 선언한 제5차 정상회의(1976년)나 "비동맹 정책의 정수는 반제국주의, 반식민주의, 반아프르트헤이트, 반불편 투쟁이다"라고 선언한 제8차 정상회의(1986)에서 단적

박은홍
(한국사회연구소·연구원)

글 쓰는 순서

1. 소련사태후 국제질서의 변화(上)
—미국·유럽을 중심으로
2. 소련 사태후 국제 질서의 변화(下)
—중국·북한을 중심으로
3. 국제질서 변화와 제3세계
4. 한국의 대외정책과 남·북관계변화
5. 한국의 무역 및 국내외 경제 전망
6. 국제정세변화에 따른 민족민주운동 세력의 대응

나섰다.

이들은 이러한 미·소의 동시 철수를 유엔이 보장하는 국제협약에 서명할 용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베트남의 경우 이미 지난 6월 당대회에서 사회주의노선 고수를 천명한 바있다. 어쨌든 향후 제3세계 사회주의진영은 소련을 대신하여 사회주의 대국으로 등장한 중국 중심의 구도속에서 이전과 같은 양진영(two camps)의 대결논리에 대한 강조보다는 정치에서의 '원칙'고수, 경제에서의 '실용'이라는 정경(政經) 분리노선을 추구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제3세계 사회주의 내지는 좌파진영의 국가운동 모델로서 중국식 모델이 보편화될 추세를 의미한다.

이제까지 분쟁관계에 있었던 중국과 베트남간의 급속한 접근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볼 수 있다. 어쨌든 제3세계 사회주의를 포함한 좌파진영의 운명은 정치에서의 '지주', 경제에서의 '생산력 제고'라는 현대적의 핵심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V. 제3세계의 약화를 반영하는 비동맹운동

세계체제의 변화와 함께 제3세계의 지위와 현실을 반영하는 또 하나의 단면인 비동맹운동

으로 드러나 듯이 양진영에 대한 불가담을 기본 목표로 하면서도 특히 서방 중심의 세계질서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취해 왔다.

그러나 걸프전쟁에서의 소련에 대한 미국의 압도적인 힘의 우위의 과시, 소련 쿠데타의 실패에 따른 소련 공산당의 붕괴로 인해 비동맹운동 내부에서는 불안정하지만 자국 중심의 단극체제를 가시화시키고 있는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서방진영과의 대결보다는 협력을 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하면서 마침내 지난 9월 기나이의 수도 아르카에서 열린 비동맹운동(NAM) 각료회의에서 '남북협력'에 대한 강조를 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번 회의에서 비동맹 국가회의의 77그룹과의 통합을 주장한 이집트나 제3세계 빈곤 타파를 위한 방도로서 서방선진국과의 경제유대의 강화를 주장한 아르헨티나의 입장이 특히 주목을 끌었던 것은 우연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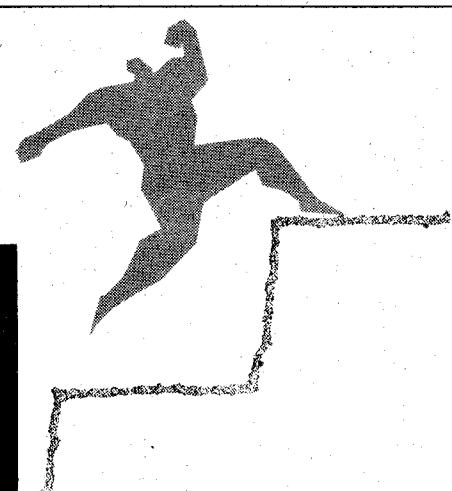
현재의 추세로 볼 때 비동맹운동은 서방에 대한 정치적 대결의 강조보다는 그들과의 경제적 협력을 주장하는 입장이 폭넓은 지지를 얻을 것같다. 이는 사실상 비동맹운동의 필요 유무를 둘러싼 논쟁으로까지 비화될 소지가 많음을 의미한다.

폐만전쟁은 동서냉전에 종식된 가운데서 제3세계 지역분쟁에 대한 미소의 대응방식이 집약적으로 표현된 경우이다.

이는 '남'(south)에 대한 미국의 강공과 이를 압목적으로 허용해 주었던 소련의 '생존'을 위한 일국주의적 정책의 실패를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소련 사태 이전에 이미 국제구조는 '동서냉전'을 대신하여 '남북전쟁'으로의 진입을 보이고 있던 와중이었고 향후 소련에서의 급진적 개혁의 입지 강화는 이러한 구도를 확실하게 정형화할 확률이 높다.

이러한 현실 국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제3세계에서의 '사회주의 지향'이나 비동맹운동은 극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그러기에 제3세계에서의 자주화 운동은 이전과 같은 선언적 수준에서가 아니라 '빈곤'과 '분쟁', '민주화'의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실질적 고려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일에만 매달려있는 것도 매력은아닙니다!

요즘 젊은이들 똥스겠다고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십니다. 일 배우는 건 개울리하면서 월차휴가는 열심히 챙기고, 퇴근시간 되기도 전에 퇴근준비하는게 요즘 젊은이들이라고요. 늘면 똥맞았지 힘든 일은 없는 것이 요즘 젊은 세대들의 생각이라고요.

하지만 요즘 젊은이들이 모두 그렇다고 생각지는 마십시오. 퇴근시간 한시간 후에도 여전히 남아 전문성적으로 매달려있는 신입사원 김군. 출근시간 한시간 전에 출근해 오늘 할일 검토하는 이영, 외출에서 돌아와 술도 즐기전에 부장님께 상항보고하는 박군, 스트레스 쌓이지않는다는 선배의 격려에 "스트레스나니요, 요즘같이 바빠면 앞날 내내 삼았날 것 같습니다."반말을 행동도 씩씩한 최군, 행진 건 확실하 쟁겨까지요, 일에만 매달려있는 것도 매력은 아닙니다만, 자기발전을 위해서 밤낮을 가리지않는 의욕적인 젊은이가 아직은 더 많다는 것을 저희는 알고있습니다.

스트레스도 마다않고 일하는 사람들의 좋은 터전 - '엘칸토'가 21세기의 토론탐선을 이끌어갈 젊은이들 찾습니다.

패션문화를 여는 곳 '엘칸토'가 21세기의 패션유통산업을 이끌어갈 패기있는 젊은이들 모십니다

1. 모집부문 및 응시자격

직종	부문	전공학과	인원	근무장소
일반관리	기획, 총무, 경리	상경계(경영, 경제, 회계, 무역), 법경제(법학, 행정)	○○명	서울, 대구, 대전, 광주, 부산
	생산관리	생산, 제품관리, QC	○명	경기, 하남시
영업	영업, 영업관리, 유통관리	상경계, 법경제, 인문계	○○명	서울, 대구, 대전, 광주, 부산
	마케팅	상경계(경영)	○명	서울
전산	전산	전산학과 (신입, 경력)	○명	서울
	디자인	제화디자인	산업디자인 (신입, 경력)	○명
계			○○명	

2. 응시자격

- 1993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4년제 정규대학 졸업자 및 1992년 2월 졸업예정자
- 해외대학 합격자 유망자
- 남자는 방학기간 또는 방학기간 중
- 단, 전산, 디자인 경력자는 1991년 이후 출생자로 실무경력 2년이상인자에 한함.

3. 전형방법

- 서류전형
- 필기시험(서류 합격자에 한함)
- 면접시험(필기 합격자에 한함)

4. 채용서류

- 자필이력서
- 자기소개서(가족사항, 성장과정 명시)
- 대학 전학한 성적증명서

5. 제출기간 및 제출처

제출기간: 1991년 11월 8일(수) ~ 11월 20일(수)
(평일 10:00 ~ 18:00, 토요일 10:00 ~ 14:00, 공휴일 제외함)

제출처: 서울 중앙우체국 사서함 7697 (우편번호 100-676)
(11월 20일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함)

6.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1991년 11월 23일까지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함

7. 필기시험

- 과목: 영어, 상식, 논문
- 일시: 1991년 11월 24일(목) 9:00 ~ 12:00
- 장소: 주우동보

8.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및 면접일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함

9. 기타

- 이력서 상단에 우호부부와 전화번호를 명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앙기획정보문물부입니다.